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기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요예배 20명 세례, 2명 입교, 꽃다발로 축하받아

6월 2일 수요예배는 20명의 세례, 2명의 입교식으로 중예배실에서 드려졌다. 수요예배를 찾아드는 성도들의 손길에는 한아름 소복한 꽃다발이 들려졌다. 문동학 담임목사는 세례, 입교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감격에 차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로마서 6장 1~11절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동안 유혹, 죄와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탐욕과 교만이 찾아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광스런 자리에 참여한다. 육적 탄생을 보는 것도 감격인데 영적 탄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특권인가?"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다. 5팀으로 나뉘서 차례로 강대상에 올라 목사와 장로의 안수기도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받고 담임목사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 각 팀은 세례를 받기 전 1명씩 간증했는데 즉석에서 간증하는 세례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을 목격하는 시간이 되었다.

(2면에서 계속)



동기사랑! 청년부 기수모임

지난주일 4부 예배를 마친 후 청년부는 각 기수별로 모임을 가졌다. 현재 청년부는 0기(70년생)에서 15기(85년생)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은 이날 모임을 통해서 동기간에 우애를 다지고 이제껏 잘 몰랐던 청년 교우들과도 친분을 다지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평소에 조모임을 함께하는 조원들 외에는 동기들이나 다른 청년들과 관계를 맺기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수별 모임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계속 이 모임을 장려

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부는 지금까지 1년 동안 다섯 번째 주일이 있는 달의 마지막 주일 시간을 이용하여 때마다 기수별 모임을 갖고 있다. 예배 후에 평소처럼 청년 1부는 유년부실에서, 청년 2부는 3집회실에서 전체 모임을 마치고 평소에는 조별 성경공부를 하느라 함께 하지 못하는 동기들끼리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지닌 청년들의 결속력을 다지고자 꼭 필요한 시간으로 서로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친교시간이다. 각 기수별로 의견을 모아 교회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아시아공원에 둘러앉아 각자의 삶을 나누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별 모임이 이루어졌다.

(2면에서 계속)

AWANA

교사를 모집합니다

AWANA(어와나)는 '부끄러울 것 없이 인정된 일꾼' (딤후2:15)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어와나는 60년전 미국에서 시작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음적인 프로그램으로 게임과 성경암송 그리고 교제의 시간으로 구성된 복음적 커리큘럼이다. 주님의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AWANAKOREA(대표:이종국목사)와 합의하여 9월부터 수요일 성경 공부시간을 전후로 어와나를 실시하려 한다.

(2면에서 계속)



호산나 창립예배준비

6월 23일 교회 창립 기념 예배의 찬양 준비를 계획했다. 작년 창립 기념예배에 한달 간 열심히 전 찬양대원이 연습준비하여, 예배드렸던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명받았었다. 금년에도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전 대원이 빠짐없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매주 수요일은 예배시간 1시간 30분 전에 전원 모여서 연습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주일날 예배 후 1시간 30분 씩 연습을 하여 왔지만 창립기념예배의 찬양을 위해서 5월 중순부터는 2시간 씩 연습해 오고있다.

하늘로

비눗방울 불어요

유치부 야외활동

5월 30일(주일) 유치부에서는 2부 활동으로 정신여고 운동장에 나가서 비눗방울 놀이를 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야외활동이라 아이들은 들뜨고 신났다. 반별로 모여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놀이를 시작했다. 누가 비눗방울을 더 많이 부는지 시합도 하고, 5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사진도 찍었다. 질서 있게 잘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쁘다.

아시아를 품을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간디 청소년 학교에서의 비전

정영환 목사와 권오승 장로를 포함, 비전팀 10명은 5월 24-25일 양일에 걸쳐 비전팀 엠티를 가졌다. 첫날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어린이를 용납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천국은 어린이들의 나라임을 되새기고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늦게까지 토



론했다. 둘째날에는 충북 제천에 있는 간디청소년학교를 방문하였다. 대안학교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간디학교의 양희창 교장은 청소년의 문화코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가치관 교육이 결여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사랑과 헌신이 교과과정 속에 녹아있는 교육, 아이들의 탁월함을 찾아주는 교육, 행복한 각자의 모습을 찾도록 돕는 교

육에 대해 역설했다. 중학생 70명으로 구성된 간디청소년학교는 마침 학생들이 국토평화순례 및 중국 체험 학습 중이라 학기 중임에도 비어 있었다. 조선족과 탈북자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중국의 아시아연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시아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운동장 한 편의 높은 나무 위에 튼튼한 사다리로 연결된 쉼터에 올라, 아이들의 그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학교 버스 와 산으로 둘러싸인 학교 전경을 내려볼 수 있었던 것은 쉽지 않은 경험이었다.

젊은 성도들에게 본과 가르침을 주는 제1남선교회 되기로



지난 5월 30일(주일)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월례회가 있었다. 회장 신정웅 집사의 인도와 계학용 장로의 기도, 지도 교역자인 김성관 목사의 제1남선교회 회원에게 바라는 말씀이 있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교회의 어른인 1남선교회 회원들이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지도한 것처럼 우리교회에서도 젊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귀한 가르침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제1남선교회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회비: 50,000원 / 1년
2) 회원 친목 도모와 지속적인 활동에 모임 목적을 둔다.
*경조사 적극 참여 *양코르 함

창단 *테니스클럽 *등산클럽
*골프 클럽 *영화 / 음악 감상
3)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세미나와 정보 상호 제공
문의: 회장 신정웅
(011-236-0661)

(1면에 이어서) AWANA 교사를 모집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사역을 돕기 위해 유영안 교육전도사가 부임했다. 이에 주님의교회 어와나를 함께 이끌어갈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다.

어와나 교사의 자격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사랑한다는 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망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이것이 없다면 어와나를 실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교육: 7월3일 토요일 오전10시 -오후 7시 주님의교회
전 학: 7월 4일, 11일 (일산 동안교회 외)
준비모임: 추후공지
문 의: 유영안 전도사
※ 교사신청은 1층 로비 자원봉사 데스크에서

제2 여선교회 노방전도를 계획하며 역동적 전도의 작은 불씨되기를

제2여선교회 월례회 모임을 6월 1일(화) 영아부실에서 가졌다. 이날은 월례회 예배를 마친 후 노방전도를 시도하게 된다. 13명의 회원들은 담당 이호목사의 허락과 지도아래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해왔다. 그동안 회비로 마련한 전도용 전단지과 불펜 한 자루로 '집축점용 선물'을 만드는 작업을 마쳤다. 전도용 전단지는 주님의교회에서 제작된 것이 없기에 기독교백화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1000부를 마련했다. 1000개 각 불펜에는 주님의교회 이름과 연락처를 새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성경구절을 첨가했다. 불펜을 하게 된 이유는 불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받는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택했다고. 전도에 임하는 신앙적인 자세와 권하는 말을 연습한 후에 2인 1조로 강남역에서부터 잠실역까지 돌아다녔다. 모두들 호응이 없고 못마땅하게 여기리라 걱정했는데 금세 전단지가 돌러지

고 전도를 했다는 기쁨에 충만해진 것에 놀라웠다. 불펜을 받는 사람도 좋아했고 회원들도 재미있고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전도를 마치고 다시 교회에서 모인 회원들의 표정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에 대한 경건의 연습을 한 것에 도리어 기쁨으로 차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도의 방법과 장소(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이 있는 병원로비)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 역동적인 신앙인으로서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수확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한 번 더 노방 전도할 계획을 가진다. 또한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루디아의 집' (시각장애할머니의 집) 방문,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생각해 하기에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가려 한다. 2여선교회는 이에 해당하는 주님의교회 여성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길, 서로 힘을 북돋아 복음을 위해 서길 기도하고 있다.

(1면에 이어서) 동기사랑! 청년부 기수모임

교회를 새로 나온 동기나 방학을 맞아 입국한 유학생들과도 서먹함을 풀어가는 기회가 되었다. 서로 유쾌한 대화시간을 가진 한 형제는 "좀처럼 갖기 힘든 자리가 만들어져 정말 반가웠고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고 새로 등록한 자매는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기별모임이 새로운 일원들과도 쉽게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볼 때 이런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공감했다. 행복한 웃음으로 채워진 기수별 모임은 청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큼 자기만의 쾌락을 쫓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에 청년부는 성숙한 결정을 하나 내렸다. 그것은 이번 달부터 청년부 기수모임에 배정된 예산을 봉사활동 예산으로 재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교회의 교류가 아닌 교회 밖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님 안에서 참사랑을 실천하는 으뜸 제자의 마음을 따르려는 청년부의 노력을 담았다.

"음식을 남기지 말아주세요"

매주일 국수봉사, 새벽부터 준비해야

매주 교인들을 위해 준비되는 따끈하고 구수한 국수를 접하면서 봉사대를 떠올리는 교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교인들을 위해 분주히 음식 준비에 애쓰시는 주일 식당 봉사대의 강은애 권사를 만나 보았다. 강권사님은 국수국물준비, 식당정리, 식탁닦기, 양념장,단무지,그릇준비등의 봉사대의 일을 소개해 주시면서, 많은 양의 국수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불은 국수를 교인들에게 내어 놓아야 하는 점과 미리 준비한 국수가 동이 나 성도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 새벽의 자원봉사 활동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몇년씩 사명감을 갖고 새벽부터 나와 한결같이 일하시는 집사님,권사님들의 모습과 젊은 남자 집사님들의 신실한 신앙심을 보면서 힘든 마음도 다 잊고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강 권사님은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므로 잔반이 없도록 음식을 남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토요일에 나오셔서 무, 양파, 파를 다듬고 씻어 준비해 주시는 김화진, 전은숙 두 권사님의 수고와 주일 새벽부터 섬기시는 여러손길 또 한달에 한 주씩 봉사하시는 7교구17구역, 3교구11구역, 6교구4구역, 3교구2구역,3구역 식구들과 매 주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우리 교인들이 잊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이셨다.

(1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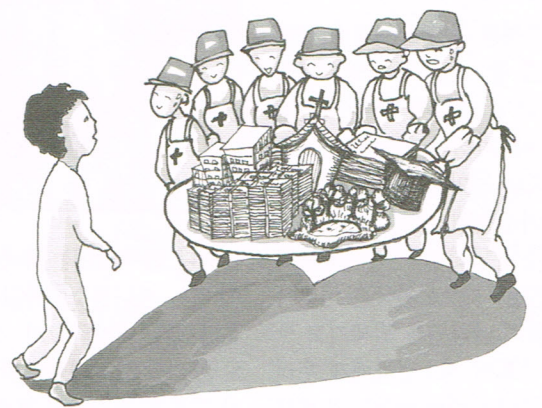
수요예배 20명 세례, 2명 입교, 꽃다발로 축하받아

박양석 성도는 아내의 인도로 2,3년 교회를 다닌 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천룡, 천혜림 세례자는 부너지간으로 아내의 성경책에 기도제목을 가끔 보게 되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최규하

자매는 남자친구와 친구부모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한다. 박성환 성도는 준비하지 않은 채 간증을 전했는데 습격 사고로 전신 마비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3년동안 회복했으나 두려움과 의심이 많아졌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당시 망우교회에 담임으로 있던 문동학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2시간 거리임에도 말씀을 듣고자 찾아가게 되었고 주님의교회도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다 한다. 신기한 것은 꼭 말씀지식을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주일에 그 말씀을 강해하셔서 놀라웠다는 것. 가장 연장자인 임귀례 세례자는 휠체어를 타고 강대상에 올라왔다. 그녀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비 집단에 빠져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제야 진리를 찾은 것 같다'라고 문동학 담임목사에게 고백했다고 한다. 입교자들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이적한 성도였다. 생생한 간증을 기사로 일일이 전할 수 없었다. 성도들의 축복송을 받고 꽃다발 행렬이 이어졌다. 잘 알지 못하더라도 꽃다발을 가져와 축하해주는 성도들의 작은 정성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세례를 받은 성도는 박양석, 김광훈, 김명선, 김성아, 김언, 천룡, 천혜림, 김완순, 김임술, 최규하, 박성환, 류현희, 황태희, 박선민, 박선미, 임귀례, 조은미, 허소정, 정수진, 강정훈이다. 입교자는 성여제, 허정기이다.

오늘 기도



전희들이 가진 것을 오직 섬김의 도구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소년부 체육대회, 3종목으로 겨뤘

소년부는 5월 30일(주일) 예배시간에 기존의 예배장소에서 나와 운동장 앞 등나무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따스한 해와 바람을 받으며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사했다. 예배를 드린 후 '열린 체육대회'에서 아이와 교사들 모두 함께 즐겁게 뛰놀았다. 백팀, 홍팀으로 나눈 체육대회는 개인 줄넘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3종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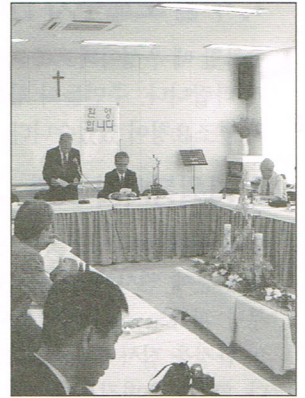


이루어졌다. 개인 줄넘기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그 동안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모습을 다하였고 교사들도 열심히 참여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들은 소년부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았다. 두 번째 순서는

줄다리기이다. 홍팀, 백팀이 나와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즐거워했다. 마지막으로 이어달리기. 각 팀의 대표선수 12명이 나와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정정당당히 승리를 향해 전력질주하여 아이들은 함께 집중되어 응원이 힘찼다. 체육대회 후 즐거운 마음이 되어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식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자연에 앉아 예배드리고 땀 흘려 가며 함께한 시간들이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4일 평양노회 은퇴 목사 위로의 시간 가져

평양노회 소속 은퇴하신 목사님들 13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퇴목사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교회 안내가 있었고, 은퇴목사님들께 식사와 선물을 대접하였다. 89세의 최고령 목사님 등 일평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한 후에도 모여, 노회 산하 교



회를 순방하며 기도하는 모임이다. 이 분들은 호홉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을 위하여 섬기려 하신다.

목요모임의 예수님 맞이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려는 성도에게 열려 있어

예수전도단이 인도하는 목요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중예배실에서 계속되고 있다. 목요모임을 위해 봉사자들은 이른 시간에 나와 많은 무대설치와 로비다과준비로 바쁘다. 30분 전에 오는 성도들에게 맛있는 쿠키와 녹차, 커피를 제공하고 있어 오는 이들로 여유를 찾고 즐거운 마음을 얻도록 해준다. 어느 성도는 "쿠키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라고 말한다. 하얀색 테이블보에 노란, 파란 냅킨에 담긴 쿠키와 2종류의 녹차티벳, 인스턴트 커피봉지, 종이컵 등이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어 중예배실의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모두들 미소 띤 얼굴로 간식을 즐기고 중예배실로 들어간다.

또 목요모임에는 '목요모임 중보기도점집이' 모임이 만들어졌다. 4월부터 목요모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영적전쟁을 놓

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했다. 각 단체와 교회를 막론하고 모인 이 예배에 중보기도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남녀 20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금은 모임 20분 전 찬양대 자리에 앉아 중보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성도들이 무지개 축제때 찍은 자신의사진을 찾고있다.

목요모임이 마치고 또 잠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진다.

중보기도 점집이는 인터넷 카페도 만들었다. 앞으로는 '설만한 물가'에서 다음 주부터 7시까지 모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 친밀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중보기도 점집이로 인해 '예배가 더욱 깊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6월 첫째 주는 창세기 50장 15~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정감,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을 요셉을 비추어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해주었다. 목요모임은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려는 성도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

'설만한 물가'에서 쉬어가세요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24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어



우리 교회 1층 로비에는 '설만한 물가'라는 쉼터가 있다. 이곳은 모든 교인들과 학교 교직원 그리고 교회 인근 주민들에게

모두 열려있다. 이곳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는데 사용된다. 운영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원 자원 봉사자들로 주 1회 4시간씩 오전 오후 2명씩 24명으로 운영된다. 메뉴는 생과일 주스와 팔빙수, 그리고 맛있는 쿠키와 차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 주 부터는 신앙 서적도 판매될 예정이니, 우리의 영혼을 살피우는 양서와 은은한 음악소리와 함께 커피향을 즐기면서 계속적인 성도간의 관심과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갈 것이다.

신임교역자인사의 글 / 영아부 서정 전도사

샬롬!!

주님의 교회 영아부 전도사로 섬기게 된 서정 전도사입니다. 먼저 함축함을 통해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첫 예배를 영아부 아이들과 함께 드리고 아이들을 바라 보면서 목민교회에서 사역한 경험 있지만 새삼 생명의 귀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교회와 헌신되고 사랑이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어린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사역할 때마다 저를 새롭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벧전1:22절)



아이들과 함께 후속 활동을 하고 있는서정 전도사의 모습(맨 중앙)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화평을 이루는 영아부가 되길 기도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저의 설레었던 마음이 처음처럼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논산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육군훈련소사역팀이 다음 주일(6월 13일) 오후 2시에 군 복음화 사역을 위해 논산으로 출발한다. 육군훈련소사역팀은 매 6주마다 한 번씩 논산 육군훈련소에 있는 연무대교회 8,000여 훈련병들의 찬양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역은 우리교회 청년부 워십팀(영혼)과 인천 꿈이있는교회 뮤지컬팀이 함께 한다. 군대에서 젊은 날 힘겨운 훈련을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 이러한 육군훈련소사역팀에 관심있는 분은 담당 교역자 정영환 목사(011-9618-3124)에게 연락하면 된다.

교회소식

1. 주일 도로주차 안내

주차할 때 우성아파트쪽 차도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송파구청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2. 자원봉사자 모집

주일 새벽에 식당봉사할 남자성도와(문의 강은애 권사 016-281-4390), 꿈나무공부방 피아노 교사 자원봉사자 4명(문의 한정웅 집사 010-8001-1144) 모집합니다. 함글함글편집부에서 교회신문 함글함글의 취재기자, 혹은 편집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또한 영상미디어부에서는 교회행사시 영상촬영, 영상편집, 예배실황중계 및 녹화 등의 영상미디어 자원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이창현 목사 011-466-4736)

3. 정기당회

6월정기당회가 6월19일(토) 오전 6시 4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4. 청소년 세례 · 입교예식

교회학교 청소년들의 세례 및 입교예식이 6월 20일(주)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오전 11시 4층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5. 설만한 물가 이용안내

1층 친교실 자리에 카페 「설만한물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대,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교역자 부임

영아부를 담당하는 서정 전도사와 어와나(AWANA, 교회학교 후속프로그램)를 담

당하는 유영안 전도사가 부임하였습니다.

7. 모집

- 어와나(AWANA)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문의: 김현령 전도사 017-354-9639)
- 3부 살롬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세례교인, 문의: 박석진 총무 011-9712-8577)

8. 모임 안내

- 앙코르합창단 연습이 오늘 오후 1시 5층 찬양연습실에서 있습니다.
- 살롬찬양대 주관으로 화천 승리부대 찬양예배를 위해 오늘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문의: 박석진 총무 011-9712-8577)
- 2여선교회가 6월9일(수) 오전 10시 설만한 물가에서 모여 루디아의집을 방문합니다.
- 3여선교회가 6월 10일(목) 강남금식기도원으로 갑니다. 오전 8시 40분 강남교회에서 모입니다.
- 5여선교회가 6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교회 로비에서 만나 청계산으로 갑니다.
- 1남선교회가 6월 13일(주) 오후 1시 교회 정문앞에서 모여 대모산으로 갑니다. (문의: 신정웅집사 011-236-0661)

9. 도서실 인터넷 카페 개설

도서실 인터넷카페를 개설 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cafe.daum.net/PCLBOOKS> 입니다. 도서실에 관한 의견이나, 도서구입요청, 대출예약 등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육군훈련소 사역출발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사역을 위해 육군훈련소사역팀과 청년부위십팀이 다음 주일(13일) 오후 2시에 로비 앞에서 출발합니다. (문의: 정영환목사)

오늘 고등부 야외예배

고등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 버스로 경기도 수동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수양관으로 이동, 야외예배를 갖는다. 고등부는 작년 가을 교사들과 학생들의 제안으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짝 짝 여진 일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11시 도착,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한 후, 산책과 대화의 시간 등을 갖은 후 2시경 서울로 출발 3시쯤 교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제2기 유소년 축구 클럽 미사리 잔디구장 훈련

유소년 축구 클럽은 6월 13일 미사리 천연 잔디 구장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

클럽회원들에게는 그동안 교회에서 코치 선생님들에게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는 실습의 장이 될 것이고 가족들에게는 푸른 잔디에 앉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담소할 수 있는 피크닉의 시간이 될 것이다. 유소년 축구클럽은 작년 가을 첫 잔디구장 훈련을 미사리 축구 경기장에서 한 바 있다. 13일 오전 11시에는 중등부, 1시에는 초등부가 출발할 예정이다. (문의: 김태원 총무집사, 011-277-9232)



❖ 교회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 서	일 정	장 소
영아부	8월 15일	주님의교회
유아부	8월 14~15일	주님의교회
유치부	8월 14~15일	주님의교회
유년부	8월 15~17일	경기도 안성 엄마 농장
초등부	7월 29~31일	경기도 양평 관광 농원
소년부	7월 22~24일	경기도 중부 수련원
중등부	7월 25~27일	강원도 화천 광덕 그린 농원
고등부	8월 1~4일	강원도 홍천 허브 농장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4.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부서	시 간	장 소	대 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썸트레(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